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1월 31일 발행 (385호)

본지 창간 16주년 기념호

05 ISSUE
공룡 같은 대형 공테 매장의 급격한 증가로 일선 안경원의 공테고객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안경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6 NEWS IN NEWS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사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등 향후 안경사의 면허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OLSO
NORDIC







VYLLAIN



TEL.053.551.8034 MAIL.olsonordic@naver.com



특허 출원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1879359호
양면 비구면 특허 제10-2222850호

NEW 1.60 DAS

1.60 양면 비구면 싱글비전 렌즈 출시!

정밀한 설계로 탄생한 신제품, **1.60 양면비구면 싱글비젼 렌즈**가
한미스위스광학(주)의 기술로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www.hslens.co.kr



황반 시세포 보호를 위한

루테인 케어 렌즈

LUTINA+

루티나 플러스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1월 31일 발행 (385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EIN
www.ahinkorea.com
1박스도 전국 무료배송
주문 전화 031)987-9173
EDP 01 18(W)×24(H) mm
EDP 02 24(H)×24(W) mm
EDP 05 18(W)×18(H) mm

니시무라 안경공구 한국총판
취급품목 : 니시무라 공구 및 소모품, 니시무라 검안 관련품, 변색+편광 세미렌즈, 연마용 청테이프(일제)
키에스 상사
010-4289-4649
주소 : 서울 중구 소월로 16, 3층



창간 16주년
주간 옵틱위클리
아이셉스
SINCE 1993

MZ 거리에 공테 매장 속속 오픈… 안경사는 발만 동동

젊은층 몰리는 핫플레이스에 매머드급 공테 매장 오픈 확산… 초대형 공테 매장에 무대응하면 안경원은 속칭 '알갈이 매장' 전락 불가피

젊은이들이 모이는 주요 지역 곳곳에 초대형 공테 매장이 속속 등장하면서 안경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주요 핫플레이스인 서울 명동과 성수동을 비롯한 홍대와 용산 등에 공룡급 매머드 공테 매장이 계속 등장하면서 안경원 영업을 옥죄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새롭게 등장한 D사의 명동 매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장소에 위치해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K대학 의류학과 출신으로 알려진 D사는 공테와 블루라이트 차단안경 등을 주로 판매하는 패션 콘셉트숍으로 서울 성수동까지 2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

현재 대형 공테 매장 중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곳은 B사다. B사는 지난 12월 부산 해운대점을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서울 명동과 성수, 용산 홍대 및 연남동 등에 약 2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B사의 매출은 대략 2022년도에 10억원을 시작으로 23년도 58억, 24년도 300억, 25년도 600~700억으로 알려져 있다. B사는 현재 공테 매장의 큰형뻘인 G사로부터 디자인 침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안경사를 긴장시키는 공테 매장 회사는 또 있다. 바로 국내 최고의 패션 플랫폼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무신사다. 이 회사는 오는 여름시즌부터 '무신사 스탠다드' 내에 안경 카테고리를 추가할 것을 공식화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지난달 기준 전국적으로 33곳이 운영 중인데, 무신사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오프라인 채널인 무신사 스탠다드는 올해 말까지 매장을 10곳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비문화 변화로 공테 매장 매출 급상승

대형 공테 매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G사다. 공테 매장의 맏형 격인 G사는 현재 면세점을 제외하고 약 30개 내외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해외 영업도 활발해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세계 15개국 38개 도시에서 총 4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럭셔리 테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G사의 기업가치는 최대 5조원까지 거론되는 등 이미 세계 유명 브랜드로 평가받을 만큼 그 위세가 대단하다.





최근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테 매장으로 안경원의 영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경사의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명동지역에 개설된 B사와 D사 공테 매장 전경이다.

결국 국내 안경원은 현재 이들 초대형 공테 매장에 이어 무신사까지 참여하며 기존의 영업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간에 걸친 불경기와 인구감소, 라섹 눈수술 확대, 소비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원에 매머드급 공테 매장이 등장해 안경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매장은 안경사 자격증도 필요 없는 공산품인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해 자리를 잡은 후 자체 브랜드(SPA) 매장이나 패션 편집숍 내의 전국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개설한 후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지역에 매장을 급격히 오픈하며 안경원을 압박하고 있다.

안경테 마진에 의존하는 영업 형태 탈피해야

대형 공테 매장들이 중심 상권에 급속히 확산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화한 이유가 크다. MZ(Gen 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패션 편집숍,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안경테 브랜드와 가격을 쉽게 비교·분석한 후 안경테를 구입하는 소비 문화가 널리 퍼진 것이다. 그 결과 지금처럼 안경사들이 공테 매장을 속수무책 무대응으로 방치할 경우 안경원은 속칭 '알갈이 매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크다.

전북안경사회에서 대의원을 역임했던 한원로 안경사는 "이제 안경원은 과거처럼 안경테 마진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안경사의 전문 업무인 조제료나 피팅료의 청구 등과 함께 전문적인 검안서비스를 강조한 프리미엄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동구의 한 안경원의 원장은 "공테 매장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제 안경원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소규모 공테 매장이 동네 곳곳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 경우 안경원은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안경시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보건소 등록자료에 기반한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의 안경원은 총 10,893개소(2025년 3월 기준)로 이는 2년 전 조사 때보다 약 1% 감소해 그만큼 안경원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별취재반

아 • 태 검안학술대회 4월 20일 제주서 개막

아시아 • 태평양 학술 교류 및 미래 전략 논의… 국내외 600여 관계자들 축제의 장 마련

제25회 아시아·태평양 검안학술대회(APOC)가 오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검안협의회(APCO)와 대한안경사협회가 주최하며, 국내 안경사 및 아·태지역 검안사, 학계·업계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해 학술 교류와 상호 연대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릴 전망이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눈 건강: 지속 가능한 안 보건을 위한 혁신과 전략')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시건강이 더욱 중요한 보건 의제로 부각되는 흐름을 반영했다. 또한 이번 APOC은 학술적 교류에 이어 아·태지역 간 연구·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APOC은 안광학 분야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해법을 폭넓게 다뤄 아·태 국가 간 지식과 정보의 공유, 또 정책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참가자 모두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상호 협력해 글로벌 검안 전문가로 도약하는 대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참가자 사전등록을 받고 있는 APOC은 초록 접수도 3월 15일까지 APOC 공식 홈페이지(koacs.com) 또는 협회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2)756-001

주간 옵틱위클리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허봉현 외 임직원 일동

02)756-1001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서울시안경사회

회장 김원철 외 임직원 일동

02)393-3206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신영일 외 임직원 일동

031)258-8787~8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KOREA OPTICAL INDUSTRY AGENCY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 김종한 외 임직원 일동

053)350-7800

KOIC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왕재 외 조합원 일동

053)358-0991

KCMA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동조합

이사장 안성호 외 조합원 일동

1544-5769

Guardian

가디안

대표 김영환 외 임직원 일동

02)318-0251

Neon

네온TEC

대표 이철석 외 임직원 일동

1644-2806

꼼꼼안경

꼼꼼안경체인

대표 손재환 외 임직원 일동

1811-7576

창간 16주년
주간 옵틱위클리

아이센스
SINCE 1993

본지 창간 16주년에 부쳐…

지금 생각해 보면 월간 아이센스가 창간되었던 1993년만 해도 국내 안경산업은 웃음꽃이 넘쳤던 때였습니다. 대구지역이 세계의 3대 안경 산지로 꼽힐 정도로 생산업체마다 활기가 넘쳤고, 어느 안경회사는 생산직원이 3천명이 넘을 만큼 한국 안경이 호황이었습니다. 안경테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회사부터 부속, 도금, 금형 등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신제품 개발에 밤을 새우며 신바람을 냈습니다. 지금은 안경공장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지만, 부산지역도 이 당시에 안경 수출과 내수 생산업체가 60곳이 넘을 정도로 왕성해서 그야말로 이 당시 한국 안경산업은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면 국내 안경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국에 5천여 남짓했던 안경원은 서로 경쟁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깨끗한 모습의 안경원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정갈하게 입은 안경사는 뭇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1989년 공포된 안경사제도는 안경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해외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을 막았고, 국가 공인 전문가로 새롭게 태어난 안경사는 8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자긍심이 컸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10명 중 9명이 안경원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업이 잘되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이 당시에 안경사 직업의 인기가 하늘만큼 높아서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안경광학과에 재입학해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정도로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30년의 긴 세월만큼 우리나라 안경테 제조와 일선 안경원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국내 안경산업은 30년 전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영업과 생산은 고단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희망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큰 것이 오늘날의 한국 안경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본지 창간 기사에서 한국 안경 현황을 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안경인은 좌절보다 한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국산 안경테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공룡 같은 초대형 공테 매장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대체한다는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잘만 활용하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고, 안경테 소재와 디자인에 더 많이 노력하면 승산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스마트안경에 들어가는 안경렌즈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오직 안경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인이 선호하는 안경 소재의 독자 개발과 디자인이 앞서면 오히려 30년 전보다 제조 환경이 더 밝게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안경산업의 모든 관계자들께서 좌절보다 희망을, 포기보다 도전을, 의기소침보다 의기양양하게 앞날을 개척하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보다 더 밝고 단단하게 업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안경인들이 미래 후배들에게 넘겨줄 의무이고 책임이기에 힘을 내야 합니다.

본지의 독자 제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3년에 월간 아이센스를 발간한 데 이어 2010년 옵틱위클리를 창간해 16주년을 맞기까지 크신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제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독자 제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주간 옵틱위클리 임직원 일동

창간 축사

'세계의 눈 위에 K-아이웨어를 얹다'



국회의원 **우재준** (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아이웨어가 K-패션•K-콘텐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옵틱위클리」가 안경산업을 이끄는 전문 매체로서 더욱 빛나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한류가 만들어 갈 안경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며, 앞으로도 「옵틱위클리」가 안경산업의 동행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록하고 확산시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창간 16주년
주간 옵틱위클리
아이센스
SINCE 1993

'업계의 소통과 발전에 큰 역할하며'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허봉현**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지는 오랜 기간 동안 정론지로서 업계 소통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안경사들에게 한층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안경사가 법적 지위에 걸맞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립과 업권 수호에 경주할 것입니다. 그 행보에 「옵틱위클리」도 동행해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귀지는 현장의 변화를 균형 있게 전하는 매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 **김종한**

그동안 안경산업의 시간을 묵묵히 기록해 온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옵틱위클리」는 현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전하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흐름과 맥락을 놓치지 않는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러한 균형감이 지난 16년을 꾸준히 이어온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안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장 기반 정책을 정교화하고, 산업 인프라의 고도화에 차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안경업계 나침반 역할을 기대합니다'



대한안우회
회장 **김덕용**

안경업계에서 어느 신문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옵틱위클리」의 뜻깊은 창간 16주년을 대한안우회의 모든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깊어진 장기불황으로 업계의 오늘날은 밝지 못하지만 「옵틱위클리」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혜안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안경업계가 의지할 수 있는 올바른 나침반으로서 「옵틱위클리」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업계 모든 이들에게 안녕이 있길 바랍니다.

'업계 정론지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라며'



한국안경렌즈도매협회
회장 **김영환**

「옵틱위클리」는 지난 16년간 우리 안경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한국 안경업계의 다양한 측면을 비춰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그 같은 열정과 수고로움에 경의를 전합니다. 그냥 버려지는 신문이 아닌 매주 항상 기다려지는 업계 전문지의 자리를 지켜온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옵틱위클리」가 우리 안경업계의 유일한 정론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안경업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왕재**

한국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오신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6년간 「옵틱위클리」는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대한민국 안광학 산업과 안경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보도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언론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안경업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안경업계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
회장 **안성호**

그간 우리 안경업계의 다양한 소식은 물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한 「옵틱위클리」의 창간 제16주년을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의 회원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업계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기여해 온 귀지의 뜻깊은 창간 기념에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옵틱위클리」가 우리 안경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계 정론지로서 등불 역할에 감사'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상현**

「옵틱위클리」의 뜻깊은 창간 16주년을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창간 이래 안경원과 업계를 아우르며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 온 귀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학계와 산업현장을 잇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오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경계의 정론지로서 업계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안경산업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에 감사'



대한시과학회
회장 **전인철**

지난 16년간 안경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과학의 학문적 발전과 안경산업 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귀지가 보여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경사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옵틱위클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경광학업계를 위한 귀지의 노고를 응원하며'



한국안광학회
회장 **김소라**

붉은 말의 해인 2026년도 丙午年이 밝았습니다. 우리나라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한국안광학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지혜롭고 탄탄하게 개척해 나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K-검안이 우뚝 성장하는 해가 되길'



OVDRA Korea 국제지부
이사장 **신효순**

눈부신 정보화 시대에서 안경 분야와 안경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옵틱위클리」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옵틱위클리」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읽으며, 안경업계의 올바른 방향과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안경사 관련 법률도 새롭게 개정됐으니 대한민국 안경사의 K-검안이 우뚝 성장하는 해가 되길 바라며, OVDRA Korea 국제지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항균코팅
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녹농균 99.9% 차단

중굴절
UV블루라이트 차단
420렌즈 사용!

since 1984
Guardian



야간운전과 골프장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가디안'**

항균 처리로 눈 건강까지 지킵니다!

가디안렌즈 진품 구별법

- 안경렌즈에 표시된 입김마크 'Guardian'을 확인하세요.
- 빨간색의 항균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안경렌즈 봉투에 적힌 'Guardian 가디안'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가디안렌즈의 항균 코팅 처리…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 통과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안경렌즈 한 장도 철저하게 검사!

- 가디안 항균렌즈는 낱벌도 개인맞춤으로 생산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봉투에 출고날짜를 표기하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평면(PL)만 여벌 공급합니다.

생산범위

- 야간 운전용 항균렌즈 Y2
- 골프 전용 항균렌즈 K3
- UV 청광 화이트 항균렌즈

창간 16주년 주간 옵틱위클리 아이센스 SINCE 1993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일본 'iOFT'

시장변화와 운영 미숙 등으로 'FaW TOKYO'에 귀속 통합… 개최 38년만에 종료로 일본 안경시장의 현실 대변



나름대로 참관객으로 가득한 iOFT 2019 오프닝 세리머니 현장.


iOFT 2018의 베스트 드레서 시상 현장



과거에 비해 참관객의 감소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iOFT 2025의 출입구.

1988년부터 시작돼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도쿄국제광학전(International Optical Fair Tokyo, iOFT)이 2025년 10월의 제38회 행사를 끝으로 그 명칭과 단독 개최가 종료됐다.

iOFT의 종료 이후 'FaW TOKYO(패션 월드 도쿄)'로의 통합은 단순한 행사 개편을 넘어 일본 안경산업이 '의료기기'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자, '일본 안경업계의 구질서가 무너지고, 개별 브랜드의 힘과 패션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례인 것.

iOFT 주최사인 RX Japan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iOFT - 도쿄국제광학전이 202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함께한 지난 여정은 정말 소중했으며, 그간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는 폐쇄 공지를 게재했다. 2026년부터는 iOFT라는 이름 대신에 일본 최대의 패션 전시회인 FaW TOKYO 내부의 '아이웨어&선글라스 컬렉션' 및 '아이웨어 OEM 존'이라는 이름의 전용 섹션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이다.

전성기의 iOFT

90년대의 iOFT는 일본 안경업계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유럽과 미국의 하우스브랜드들이 잇달아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다양한 수입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회로 성장하면서 인터넷이 없던 당시에 iOFT는 신제품을 접하는 유일한 장소였고,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거대 이벤트이자 큰 축제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일본 국내외 하우스브랜드가 iOFT를 점차 이탈하기 시작했다. 브랜딩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외 대리점이나 도매상과 나란히 출전하는 것을 꺼리는 브랜드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인근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독자적으로 신제품을 선보이는 방식을 택했고, iOFT와 같은 기간에 개최되며 참관객을 빼어가 iOFT 주최사인 리드社(現 RX Japan)는 이러한 흐름에 반발, 인근 호텔에서의 개최를 저지하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iOFT에는 1인 오너 겸 디자이너 체제의 인디 브랜드 참여가 서서히 늘어났고, 기업에서 독립한 인디 브랜드들도 성공을 거두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전성기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유럽 브랜드의 빈자리를 일본 브랜드들이 채우면서 iOFT만의 매력은 어느 정도 유지됐다.

하우스브랜드의 약세와 전시회 매력 저하로 침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유료화의 강세, 콘셉트 숍의 증가, 수입 브랜드의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누적되며 안경원의 매출은 점차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시회의 구심력 또한 점차 떨어졌다.

여기에 진스(JINS)·조프(Zoff) 등 스파(SPA) 체인의 대두로 저가 안경브랜드의 파도가 몰아치며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일본 하우스브랜드들의 개성과 참신함이 점차 사라졌고, 유행은 제작이 비교적 쉬운 '클래식 스타일'이나 스테인리스 '시트 메탈' 디자인으로 옮겨갔다. 그 결과 iOFT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출전 브랜드가 줄어들며 매력적인 신규 브랜드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유통 구조의 변화도 iOFT 전시회의 매력 저하 원인으로 꼽히는데, 전통적인 전시회는 '제조사-도매상-소매점'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 하지만 SNS의 발달과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브랜드가 직접 안경원이나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주류가 되었다. 굳이 비싼 참가비를 내고 iOFT라는 큰 틀에 갇힐 이유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아시아 최대의 광학전'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홍콩이나 상하이 전시회가 규모나 관람객 수에서 이미 상당히 앞서 있었고, iOFT의 방문자 수는 주최즉의 공식 발표와 현장에서의 체감과 괴리가 컸다는 평가가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iOFT 주최측의 독단적인 운영에 업계 불만 폭발

iOFT 와해의 결정적인 요인은 일본의 프리미엄 아이웨어 브랜드 '999.9(포나인즈)'만이 무료로 부스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 업계에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주최 측이 업계에서 상징성이 큰 브랜드인 포나인즈를 잡기 위해 비밀리에 부스 비용 면제 및 특별 대우를 제공했고, 이것이 업계 내부 관계자들과 타 브랜드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공정해야할 전시회가 특정 브랜드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일본의 주요 안경기업들이 대거 iOFT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때까지 비싼 참가비를 내왔던 대리점과 도매상들이 일제히 이탈하며 새로운 전시회를 기획하는 사태로 악화됐다. 대규모 출전에 대한 할인이나 우대 조치가 전혀 없었던 iOFT 측의 대응과 그동안 쌓여온 불평등에 주요 브랜드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넓은 부스를 구매해도 할인이 전혀 없는데, 한 업체의 브랜드만 우대받는 현실에 격분한 업체들이 적지 않았기에 새로운 전시회는 찬성과 참여를 얻어내기 쉬웠다고 한다.

일본 안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iOFT는 출전 업체나 협찬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최사는 단지 장소를 빌려주고 업체들을 모아 부스를 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다"며 "매년 정형화된 베스트 드레서상, 미디어 노출, 전국의 안경원과 바이어에게 보내는 대량의 초대장 등 옛날 방식의 '전시회 비즈니스' 모델만을 답습할 뿐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와는 반대로 'GROOVER'나 'XAZTLAN' 같은 개성 강한 브랜드들은 큰 전시장보다 자신들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별도의 쇼룸이나 소규모 연합 전시회를 개최해 왔으며, 일본 안경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후쿠이현 사바에의 제조사들도 '대량 생산'보다는 '브랜드화'에 집중하면서 iOFT 같은 대규모 수주회보다 타깃이 확실한 패션위크나 해외 광학전(프랑스 SILMO·이탈리아 MIDO 등)에 직접 진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점차 멋진 안경은 'iOFT에 없다'는 인식이 업계 바이어들 사이에 퍼지면서 iOFT는 대형 제조사와 OEM 업체 중심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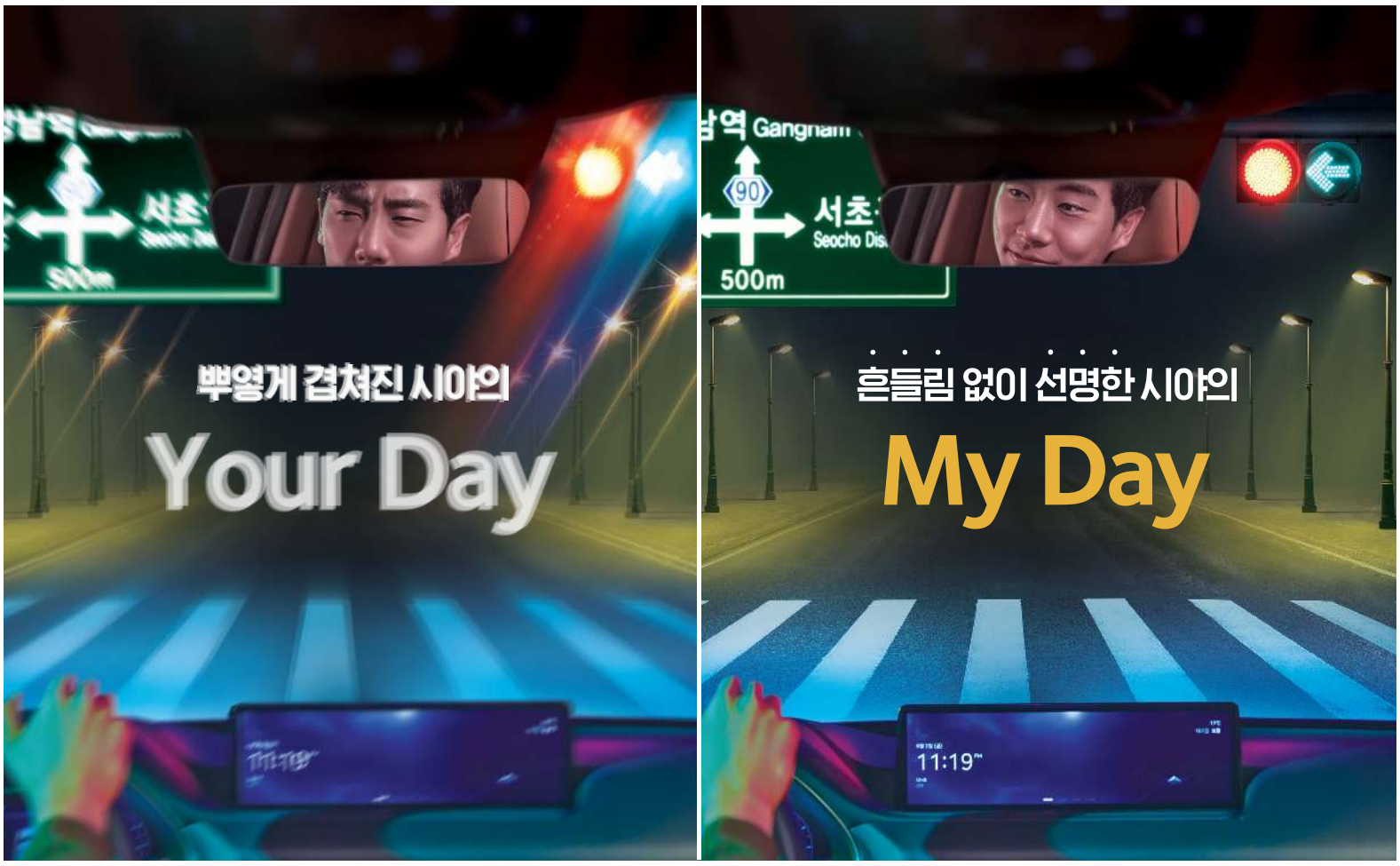
향후 개별 브랜드와 독립 안경원으로 재편 예상

iOFT는 단순히 제품을 들여오는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 일본 전역의 안경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집결의 장'이었다. iOFT 전시회 초기 때부터 참가해 왔다는 한 업체의 이사는 "iOFT는 평소에 좀처럼 만나기 힘든 동종업계 사람들과 재회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동향을 서로 나누며 친목을 다지던 연중 가장 귀중한 기회였다"며 "이 유일무이한 교류의 장이 사라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결국 iOFT라는 축제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이는 새로운 격변의 시작이라기보다 이미 개별 브랜드와 독립 안경원을 중심으로 재편된 일본 안경시장의 현실을 뒤늦게 재확인한 사건이다. 38년 만에 맞이한 이 형식적인 공백은 역설적으로 일본 안경산업이 현재 가장 본질적이고 치열한 '진검승부'의 장에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출처 : FaW TOKYO 홈페이지/ 웹 미디어 'boot' 편집장 칼럼 / GLAFAS 미디어/ 메가네노이자와 소식

쿠퍼비전®



시작하자,
마이데이® 토릭

흔들림 없이 선명한 난시 전문 렌즈





아쿠아폼® 기술로
하루종일 촉촉한 착용감



OTLG™ 디자인의
적은 렌즈 회전으로 선명한 시야

*이 제품은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로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요. 심의승인번호 : 조합-2023-23-024 (유효기간 2026-06-29)

창간 16주년 주간 옵틱위클리 아이센스 SINCE 1993

열풍 휩싸인 중국의 AI 스마트안경 안경사는 '속앓이'

과다한 책임에 비해 낮은 수익으로 불만 고조
합리적인 서비스료 청구와 기기 문제 발생 시에 철저한 책임 소재 구분해야

중국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의 판매가 전년 대비 200% 가까이 늘어나면서 스마트안경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판매 이면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안경사들의 우려와 함께 '팔아도 손해'라며 수익구조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결국 고기능 기술의 팽창과 유통 현장의 거부감이 충돌하고 있는 중국 현지의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한국 안경업계는 AI 안경에 어떤 사전 대비가 필요한지 점검했다. 〈편집자 주〉

까다로운 렌즈 조립의 수수료 정상화해야

상하이에서 10년째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왕(王)모 씨는 최근 매장에 사입·진열했던 AI 안경 재고를 모두 뺐다. 수익성이 일반 안경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때문이다. 그는 AI 안경에 대해 한마디로 '남의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내 집 거덜 내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반 안경테는 원가 대비 마진율이 높은 편인데, 화웨이·샤오미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AI 안경은 가격이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된 '가전제품'이고, 따라서 오프라인 안경원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진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AI 안경에 대한 안경원의 실질적 이익은 일반 안경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AI 안경은 프레임 안에 배터리, 칩셋, 스피커 부품 등이 가득 차서 렌즈를 가공할 때 조금만 열이나 압력이 잘못 가해지면 수천 위안(단가 약 40~80만원)짜리 기기가 먹통이 될 수 있다"며 "AI 안경은 안경원이 조립 가공비(공임비)를 벌려다 기기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더구나 현재 중국에서는 AI 안경의 판매권을 놓고 IT 대리점과 전통 안경원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 매장은 AI 안경을 '스마트 웨어러블'로 분류해 직접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IT 매장은 안경의 핵심인 미세한 피팅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곳이 많다. IT 매장은 기기를 판매하기만 할 뿐 사용자의 얼굴형에 맞춘 미세 조정이 안 되어 고객이 두통 등을 호소하면 '이 문제는 안경원에서 상의하라'며 책임을 안경원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소비자 대부분이 대기업 매장이나 알리바바, 징둥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기기를 구입한 후 정작 시력검사와 렌즈를 가공할 때는 안경원을 찾고 있는데, 렌즈 가공비는 보통 50~100위안(약 1~2만원) 수준인것에 반해 작업 중 고가의 스마트 안경테를 깨뜨리면 몇천 위안을 물어내야 한다. 안경원 입장에서는 '돈 되는 본체의 수익은 대기업이 챙기고, 위험은 안경원에 전가되는' 까다로운 렌즈 조립만 해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대형 체인안경원은 검안과 피팅이 필수적인 AI 안경의 특성상 IT 기업들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판매 중이지만, 소규모 안경원은 이 같은 협상에서 소외돼 수익성이 지극히 낮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기 문제 발생 시 대다수 고객들 안경원 지목

일반 안경은 부러졌을 때 수리하거나 테를 교체하면 되지만, AI 안경은 고장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AI 안경을 맞춘 뒤 블루투스가 끊긴다'고 주장할 때, 이것이 렌즈 가공 중에 발생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기기 자체의 결함인지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 요구는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면하는 안경원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AI 안경은 템플 부분에 배터리와 칩이 내장되어 일반 안경처럼 열을 가해 마음대로 구부릴 수 없다. '내 귀에 안 맞는다'는 고객의 불만을 해결할 물리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안경원이 괜한 핀잔을 받는 구조다. 또한 AI 안경의 특성상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고객의 과실로 인한 고장에도 고객들은 최근 방문한 안경원을 고장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착용자가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 이런 요인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렌즈 도수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분쟁이 잦아질 우려도 적지 않다.

AI 스마트안경은 재고와 감가상각 철저 관리해야

문제점은 또 있다. 바로 안경테는 보통 1~2년 이상 유행하는데 비해 IT 제품은 6개월만 지나도 구형이 되어버린다. 전자제품은 신모델이 나오면 기존의 재고는 가치가 폭락해 AI 안경이 거대한 부채가 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중국의 소규모 안경원은 신모델 출시와 동시에 기존 재고가 '거대한 부채'로 변하는 공포를 겪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같은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경사들은 AI 안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 안경을 취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IT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매장으로 유입시키는 강력한 고객 락인(Lock-in) 효과와 일단 매장에 오면 고부가가치 렌즈나 선글라스를 함께 판매하는 '교차 판매(Cross-selling)' 기회가 생겨서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의 트렌드에 제외되거나 뒤쳐지면 곧바로 낙오한다는 공포감도 작용해 안경원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수익성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안경업이 전통적인 소매업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되는 변곡점에서 AI 안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안경에 대한 중국 안경사들의 생각은 미래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의 선택과 레드오션으로 변한 안경시장에서 AI라는 돌파구를 선점해야 하는 절박함이 수익 논란보다 앞서고 있다. 중국 안경사들이 AI 안경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기술이 싫어서가 아니라 책임과 보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한국 안경업계도 '리스크는 크고, 마진은 적은 제품을 왜 판매하는가', 대기업의 AS센터 노릇은 하지 말자'는 회의적인 시각과 '이미 안경시장은 레드오션이다. 앞으로 AI 안경은 안경업을 '사양산업'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바꿀 유일한 탈출구'라는 낙관론자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안경사들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화려한 기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형 IT 제조사와 안경 단체나 체인 간에 AS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용 가공 장비 보급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안경사들은 ▶렌즈 가공 시 파손되면 제조사 보상보험 ▶안경사 전용 가공 툴 제공 ▶합리적인 피팅 서비스료 보장 등 실질적인 혜택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경원도 AI 안경이라는 하드웨어 판매 마진보다는 정밀 검안, 전용 렌즈 교체, 시력 데이터 관리 등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서 수익원을 찾는 등 서비스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 신랑재경(新浪財經), IDC China, 중국안경업협회 종합 리포트



2025 중국심천광학전에 출품된 다양한 AI 안경.



현지 안경원에서 AI 안경을 살펴보고 있는 소비자.



다양한 AI 안경을 살펴볼 수 있는 상하이 한 안경원의 관련 디스플레이.

대한안경사협회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ASIA PACIFIC COUNCIL
OF OPTOMETRY

The 25th APOC

Asia Pacific Optometric Congress 2026, Jeju

◀ 참가 등록

◀ 초록 접수

초록 제출 마감: **3월 15일**까지
(**온라인 양식**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

Jeju

20-21 April 2026

Haevichi Hotels, JEJU, Republic of Korea

ORGANIZERS

ASIA PACIFIC COUNCIL
OF OPTOMETRY

대한안경사협회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2026 디옵스, 4개 안경사회와 업무협약

안광학진흥원, 대구·울산·경북·경남안경사회와 현장 보수교육 참가 최종 확정

국내 유일의 국제 안광학 전시회인 2026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이 성공적인 개최를 예고했다. 전국 안경사들의 대규모 참가를 이끌 현장 보수교육 협약식이 체결된 것.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종한)은 지난 13일 ㈔대한안경사협회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4개 시도안경사회와 2026 디옵스 현장 보수교육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시도안경사회 소속 안경사들은 디옵스 기간 중에 현장 보수교육에 대거 참여와 집결이 기대된다.



협약식의 관계자들.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울산시안경사회 윤대영 회장, 경남안경사회 진수진 회장, 중앙회 변효섭 사업부회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종한 원장, 경북안경사회 송명재 회장, 대구시안경사회 이석원 회장.

이번 협약 체결 과정에는 중앙회 변효섭 사업부회장도 참석해 전국 안경사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 진흥원과 협회 양측은 많은 안경사들이 디옵스를 찾는데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대구·울산·경북·경남 안경사회의 안경사들은 보수교육 이수와 전시회 참관을 위해 대구 엑스코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디옵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 1~2홀에서 개최되는데, 부스 참가 및 사전참관 등록에 관한 정보는 디옵스 공식 홈페이지(diop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350-7842

깐깐한 '루티나 변색렌즈' 기능 완벽

토카이, 시력교정과 눈 보호 동시 만족… 가시광선 반응형으로 변색 우수

토카이렌즈㈜(대표 김형진)의 아이헬스케어 루티나 변색렌즈가 시력교정과 눈 보호를 동시에 이루는 눈 건강 안경렌즈로 안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자외선(UV) 반응형 변색렌즈에서 한 단계 진화한 가시광선 반응형 변색렌즈로 리뉴얼돼 사용 환경에 맞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루티나 소재에 변색코팅을 더한 루티나 변색렌즈는 눈에 유해한 파장대인 고에너지 가시광선(HEV) 영역을 선택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단순하게 밝기만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빛의 질까지 관리해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층 높였다. 가시광선 변색렌즈가 기존처럼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밝은 빛 자체에 반응해 착색됨으로써 그 기능이 강화된 것.

이에 따라 토카이 루티나 변색렌즈는 자동차 유리나 건물의 유리처럼 자외선이 차단된 환경 또는 흐린 날이나 실내처럼 자외선은 약하지만 밝기가 높은 환경에서도 렌즈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 보다 실질적인 눈부심 완화효과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루티나 변색렌즈는 자외선 차단을 기본으로 HEV 영역까지 고려한 설계로 야외활동은 물론 운전,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더욱더 편안하고 안정된 시 환경을 제공한다.

토카이렌즈의 관계자는 "기존에 시력교정 중심의 렌즈 개념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인 눈 건강을 고려한 토카이 루티나 변색렌즈는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2)337-8666

케미렌즈, RX자동화 설비 구축 완료

모든 공정의 자동화로 RX렌즈의 고품질 생산과 속도 크게 단축

㈜케미그라스(대표 반경민)가 최근 RX자동화 설비를 도입·설치하며 생산성 혁신에 나섰다. 기존 수작업 중심의 공정으로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 생산성 제고에 한계를 느낀 케미그라스가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통해 맞춤형 렌즈 생산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처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케미의 자동화 설비는 전체 RX생산의 속도가 크게 단축된 것은 물론 불량률 감소와 품질 안정성도 확보했다. 케미의 자동화 설비가 데이터 기반의 공정 관리가 가능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수정하고, 또 생산 전문직원들도 반복적인 작업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이나 품질 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사의 관계자는 "자사는 이번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품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이로써 자사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로 이어지는, 블럭킹부터 CNC, 연마, 레이저마킹, 디블럭킹 등 주요 공정이 모두 자동화로 불량률 감소와 안정적인 생산성 확보, 최적의 납기를 이루었다"고 소개했다.

문의 055)387-3030

社 說

성공을 위한 실패학 개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으레 '성공'을 떠올린다. '성공'이라는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고, 뭇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경쟁이 깊어지면 성공 욕구가 더 간절해진다.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래서인지 성공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생활 습관까지 배우고 익힌다. 일례로 세계 굴지의 혼다자동차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 회장은 스스로 화장실 청소를 잘해 성공했다고 알려지면서 적잖은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를 따라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오만이나 아집을 씻어내어 성공했다는 뜻에서 청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성공학 못지않게 실패학(failure study)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겠다는 뜻이지만, 일례로 시스코시스템社의 존 체임버스 CEO는 "난독증은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글을 읽지 못하자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의 대가가 되어 성공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책은 물론 보고서조차 읽기 어려웠던 그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대신에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도사(?)가 되어 실패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다. 그는 "내 인생의 최고 행운은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은 후 인생관과 경영관이 크게 바뀌었다. 고집불통의 완고함에서 벗어나 유연한 성품의 경영자로 재탄생해 훗날 애플이 대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만큼 성공과 실패는 서로 뗄 수 없는 쌍둥이 같은 존재로 실패는 성공의 자양분 같은 존재다.

▶일본의 실패학 권위자인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郎) 교수도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에서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이며, 실패에서 배우면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듯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는 실패한 제품만 진열한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에는 펩시콜라가 야심 차게 출시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 '투명 콜라'부터 할리 데이비슨 향수, 구글 글라스, 콜게이트의 냉동 라자냐 치약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실패학의 권위자인 로버트 맥메스가 '신제품의 90%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의문에서 1990년 설립해 약 13만 점이 전시 중이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안경계도 마찬가지여서 업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소속원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일깨워 실패를 대처하는 힘을 응집시키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다만 소속원들이 분발하려면 먼저 지도자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목표를 확정한 후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실이 '답답하다, 막막하다'는 말보다 '힘을 합칩시다, 협력합시다'고 말해야 한다. 안경계 곳곳에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확고한 의지로 목표를 향해 페달을 밟아야 한다. 분명 좌절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 허선



스마트글라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메타와 에실로룩소티카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글라스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면서 경쟁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의 현지 매체들은 '레이밴 메타 안경의 판매가 높아지면서 메타 측은 레이밴을 보유한 에실로룩소티카에 연간 생산 역량을 2천만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레이밴 메타 스마트글라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급증으로 생산량 증가는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지난 연말 마크 저커버그 CEO는 내부회의에서 2024년 한 해에 레이밴 메타 스마트글라스가 전 세계적으로 1백만개 이상 판매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안경존중 irespect.co.kr

RESPECT EYES
RE:SPEC EYEWEAR

WINC
윙크렌즈와 함께 합니다



RESPECT

EYEWEAR

26년 1월 Grand Opening
안경존중 수원KT위즈파크점

가맹상담신청

안경존중 상권 개발 지점

- 송파점 2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 보라매점 20평대 (예상 매출 3천만 원)
- 은평점 30평대 (예상 매출 8천만 원)
- 청량리점 2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 서초점 40평대 (예상 매출 5천만 원)
- 동서울점 40평대 (예상 매출 3.5천만 원)
- 건대점 50평대 (예상 매출 4천만 원)

안경존중 가맹상담 | **010-8127-9938** | **www.irespect.co.kr**

복지부, 치과기공사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예고

면허 미신고자 관리 • 감독 강화… 대안협, 안경사의 면허 관리에 주의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면허 관리•감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면허 미신고한 치과기공사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사들을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는 오는 3월 중 면허효력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데, 이를 시작으로 안경사를 포함한 여타 보건의료 직종으로 행정처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 미신고 안경사 고용하면 영업정지 처분

그 결과 안경사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근무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종사 직원이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원에 근무하다 적발되면 해당 안경원은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양벌규정에 의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 고용 시에는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부터 안경원 개설이나 양도•양수 시에는 면허신고 확인서가 필수 서류로 추가되어 이후 현장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안경사들이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어 개설이 보류되는 등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의 관계자는 "올해 법정 보수교육이 각 시도안경사회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반드시 별도로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경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허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02)756-1001

30~50대 중년층서 백내장 환자 급증

전체 백내장 환자의 16% 차지… 블루라이트 차단안경 권유해야

그동안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지던 백내장이 근래 30~50대의 이른바 '젊은 백내장' 환자가 급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백내장 환자 중 약 16%가 30~50대에 해당되어 백내장 환자 6명 중 1명이 젊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년의 이른 나이에 백내장 환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수정체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수정체 혼탁을 일으키고,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을 유발하게 된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한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앞으로 일선 안경사들은 30~50대 고객에게 블루라이트 차단안경의 권유는 물론 근거리 작업 이후엔 최소 10분간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생활습관을 가질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며 "특히 백내장 징후가 의심되는 고객은 안과를 방문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경사들, 가짜 정보 유튜브에 '발끈'

마진 높아서 안경원 폐업 없다는 가짜 정보 범람… 대안협의 강력 제재 필요



안경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왜곡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범람해 안경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손님 없는데 어떻게 버티죠?" 절대 망하지 않는 안경점(원)의 소름 돋는 비밀(자영업의 두 얼굴)'이란 제목의 영상에 많은 안경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조회수 29만회 이상을 기록 중인 해당 영상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영업 분석 보고서 및 업종별 동향' '통계청이 공시한 안경 소매업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영업비용 구조' 등 갖가지 공신력을 지닌 자료를 제시해 유튜브 영상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안경점은 높은 마진 구조, 적은 재고 부담, 탄탄한 법적 보호 등으로 기타 자영업 대비 월등한 시장 생존력을 지니고 있다'란 안경업계의 실상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영상을 접한 많은 일반 이용자들은 이에 동감을 표하며, 안경원의 '폭리'를 비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안경점, 사악하게 비싸고 원가는 거의 바닥 아니 지하실입니다. 마진 죽입니다(qk*****)' 등 영상 내용에 동감을 표하며 안경원의 폭리(?)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안경사는 이 영상들은 '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장의 현실' 무시한 유튜브에 반발

댓글에 참여한 한 안경원 원장은 '작금의 안경원은 월세와 인테리어, 관련장비, 재고,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 없이 원장 혼자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금 잘 되는 곳은 전체 안경원의 10%나 될지 모르겠다(오스*****)'고 했고, 또 다른 원장은 '하루에 안경 4~5건도 판매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 이상이고, 일회용 콘택트렌즈는 마진이 제로된 지 오래됐다'고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한편 수도권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대한안경사협회가 유튜브에 나오는 근용안경 판매광고를 차단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해당 유튜브에 강경하게 대응해 안경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LUME EDITOR

OFFICIAL WEBSITE

플럼에디터(PLUME-EDITOR) 파트너십 대리점 모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www.plume-editor.com
070-4257-6102
#플럼에디터 #plume-editor

plume.editor
plumeditor
blog.naver.com/plume_editor

대안협 16개 시도안경사회 제53차 정기총회 상보

1월에 12개 지부 정기총회 개최… 전년도 수입 • 지출 결산, 새해 사업계획 원안대로 의결

㈔대한안경사협회의 16개 시도안경사회의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4일 전라북도안경사회를 시작해 다음 달 10일 대전시안경사회까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5년도 회무보고와 수입•지출 결산 승인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안경사 등 몇몇 안경사회는 새로운 감사를 선출했다. 다음은 각 안경사회의 총회 현장 모습이다. 한편 강원도안경사회•충청북도안경사회•전라남도안경사회•대전시안경사회 등의 총회는 각각 2월 1일, 3일, 8일, 10일이며, 중앙회의 정기총회는 오는 2월 26일 잠정 예정되어 있다.

〈편집자 주〉



서울시안경사회

1월 22일, 서울안경사회 대강당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부산시안경사회

1월 24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대구시안경사회

1월 26일, 라온웨딩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인천시안경사회

1월 16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광주시안경사회

1월 21일, 광주시안경사회 사무국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울산시안경사회

1월 27일, 울산시안경사회 사무국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김국주 감사 연임, 김정환 신임 감사 선출



경기도안경사회

1월 28일, 수원 노블레스컨벤션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충남안경사회

1월 20일, 충남안경사회 사무국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황상호 신임 감사 선출



경북안경사회

1월 25일, 경상북도안경사회 사무국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경남안경사회

1월 23일, 힐스카이웨딩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황석준 신임 감사 선출



제주도안경사회

1월 18일, 제주관광대학교
2025년 수입 • 지출. 2026년 수입 • 지출 예산(안), 질의 후 통과

INOTI

BRAND POWER
9년연속수상
9년연속 12개기관 안경프랜차이즈 부문 대상수상



안경원 세상쉬운운영

=이노베이션+이노티

안정적인 안경원 운영을 위한 성공공식

1억창업지원

1억 정부지원
창업자금대출
알선

위탁&할인

안경테, 렌즈,
콘택트렌즈
검안시스템
(위탁/할인시스템)

매출 컨설팅

컨설팅(분석,
결과보고)시스템
(매월 가맹점 컨설팅진행)

월 행사기획	온라인마케팅	홍보영상지원	어린이집중케어
본사 기획 행사 홍보물 제작,포스터·SNS, 블로그 콘텐츠 제공	네이버 ,인스타그램, 카카오, 당근마켓, 등 플랫폼별 맞춤광고운영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네이버 클립 등의 컨텐츠 제공	소아용 전문 검사차트 솔루션을 통한 어린이 집중관리시스템 제공





NAVER 이노티안경

가맹상담 080-533-1000 / 010-4929-8300

서울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8 은솔빌딩 4층 405호. TEL. 02.757.1212
진주본사. 경남 진주시 큰들로 118 이노티프라자 1층. TEL. 055.763.8300

이노티 가맹혜택

ESSILOR INSTRUMENTS IS INNOVATION



ES 700 + TCB 800



ES 800M + TCB 800



AKR - 800



NEKSIA Ver 2 + TCB

ESSILOR INSTRUMENTS



VisionR-700



Delta200+TESS



MPH 150



APH - 550

ESSILOR INSTRUMENTS

ESSILOR 한국총판

(주)신일광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2층 207호 (회현동 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상담전화 : (02)752-2325, (02)756-0876 Fax.(02)318-4007

INNOVATION TO UNLOCK YOUR POTENTIAL



VX-110



VX-40



PLM - 8000



VX-36



PDR - 7000



VX-65



PRK - 9000



VX-25

VISIONIX POTEC

VISIONIX POTEC (주)신일광학

렌즈 왜곡,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혹하지 맙시다!

국제 기준에도 없는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왜곡… 렌즈 가장자리 왜곡은 눈과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극소수 안경사들이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경렌즈의 왜곡을 소비자에게 크게 부풀리는 영업으로 전국 안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의 안경을 살피면서 '안경렌즈 왜곡'을 과장되게 부풀려 전체 안경원을 매도하는 얄팍한 영업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원래 CR 39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소재의 특성상 나사를 조이면 가장자리에 미미한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같은 안경렌즈의 가장자리의 미미한 왜곡은 시력이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일부 안경사들이 이를 과도하게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고객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우리 안경원은 왜곡이 없다'며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안경렌즈는 조제 시에 부득이 나사를 조이면 조금 왜곡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

국내외 안광학 논문에도 '안경렌즈 왜곡 기준' 전무

실제로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왜곡 문제는 국내외 안광학과 관련한 모든 논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만약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왜곡으로 시력과 도수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왜곡 기준이 생겼을 것이다. 그만큼 눈과 시력 및 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안경렌즈 가장자리의 왜곡이다.

더구나 안경테에 안경렌즈를 끼울 때 왜곡이 전혀 없게 조제하면 렌즈가 손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안경테에서 안경렌즈가 빠지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안경 조제다. 극소수 안경원에서 조제할 때 경미한 실수로 렌즈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경테에 렌즈를 본드로 붙이는 이것이 잘못된 안경 조제인 것이다.

결국 자신의 실력을 소비자에게 과대 포장하고, 안경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안경렌즈의 왜곡을 부풀리는 왜곡된 마케팅으로 전체 안경원을 매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자신들이 조제한 안경도 왜곡검사기에서 왜곡되는 실상을 숨기고 잘못된 정보를 실력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엄연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제,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릇된 마케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Huvitz

NEW PRODUCT

Deep Step Bevel
최대 20mm

The World's First

렌즈 오버 프레임 선글라스의 완성, HPE-990

렌즈 오버 프레임 선글라스, 고커브 스포츠 고글, 무테 안경테, 원하는 모든 스타일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제품 구매 문의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주)휴비츠 본사 직영 1588-0673
- **대구 / 경북 본사 직영점 :** (주)휴비츠 대구·경북 지사 053)384-2490
- **대전 / 충남 / 충북 본사 직영점 :** (주)휴비츠 대전 지사 042)710-2330
- **부산 / 경남 / 울산 대리점 :** 새천년광학 010-3616-6163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대리점 :** 금호광학 010-9001-1005

교육 명품 '다비치' 사관 및 공채 입교식

교육생 54명 향후 16주간 집중 전문교육… 전문성 강화 위해 올해부터 사관 및 공채생 합동 교육



지난 20일 실시된 2026년 다비치 사관학교 입교식의 다양한 행사장 전경.



다비치 사관 및 공채 입교식의 다양한 행사장 전경.



교육생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다비치안경 김흥수 대표(사진 좌측)와 김인규 회장.

㈜다비치안경이 지난 20일 대전의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2026년 다비치 사관 및 공채 입교식을 거행했다. 이에 따라 실무형 안경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선발된 총 54명의 교육생은 향후 공통과정 12주, 심화과정 4주 등 총 16주간의 교육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생들은 공통과정을 통해 다비치의 핵심가치와 고객응대 전략, 안경사 직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직무 기술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 이외에 실제 매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상황을 반영한 사안별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과 비전케어 관련 교육, 매장 현장실습 등 실전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로 사관·공채 교육 20주년 맞아

특히 이번 교육생들은 예전과 달리 사관생과 공채생을 합동으로 교육하는 공통과정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즉 공통 과정을 이수하면 곧이어 공채 과정을 실시해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사관 과정으로 운영되며, 공통과정 상위 성과자에게는 심화과정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비치안경의 관계자는 "자사는 올해 교육부터 기존의 사관·공채 분리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과정 중심으로 운영구조를 개편, 이를 통해 현장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갖춘 안경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은 전국의 다비치 가맹점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026년에 20주년을 맞은 다비치안경의 사관·공채생 모집은 지난 19년간 운영되어 온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양성된 졸업생은 사관 1,087명, 공채 702명으로, 이들은 전국 다비치 가맹점에서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752-6177

2026 DAEGU INTERNATIONAL OPTICAL SHOW

DIOPS



2026 대구국제안경전

4. 1 WED — 4. 3 FRI

exco 서관 1, 2홀 | WEST WING 1, 2 HALL

주최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주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KOREA OPTICAL INDUSTRY AGENCY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6년 렌즈 트렌드, '고윤정 렌즈' 6종이면 끝!

넷플릭스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렌즈미… 유스, 애쉬즈 등 6종 렌즈 주목

㈜렌즈미(대표 송계진)의 전속모델 배우 고윤정 씨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를 통해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공개되고 있는 한국의 로맨틱코미디 '이 사랑 통역 되나요?'에서 배우 고윤정 씨는 다양한 매력을 뽐내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고윤정 PICK 렌즈'를 만나보자. 문의 1577-2160



유스

가벼운 피팅감과 단 한 겹의 완벽한 컬러로 눈동자를 감싸주는 원 레이어 렌즈인 유스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소프트한 서클 엣지가 특징이다. 건강한 눈을 위한 퍼스퍼릴콜린 재질의 UV 차단 렌즈로 원데이와 먼슬리 중 희망하는 착용 주기의 선택이 가능하다.



유스온

13.8㎜ 직경과 하이라이팅 패턴으로 또렷한 느낌을 주는 빅사이즈 렌즈인 유스온.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을 통해 더욱 촉촉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전달하는 유스온은 선명하면서도 깊이 있는 컬러감으로 데일리와 분위기 연출 두 가지 모두에 잘 어울리는 렌즈다.



애쉬즈

모든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애쉬빛을 더한 차별화된 컬러감의 애쉬즈는 지루하지 않은 패턴이 만들어내는 세련되고 오묘한 눈동자가 가능한 렌즈다. 당당한 애티튜드로 모두를 사로잡는 독보적 분위기 연출에 제격이다.



판데이아

눈동자를 더욱 맑게 만들어 주는 자연광 렌즈로 생체친화적 퍼스퍼릴콜린 재질에 UV 차단 기능까지 더해져 촉촉하고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다. 데일리는 물론 직장인의 메이크업까지 어떤 룩에도 안정적으로 어울리는 컬러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유스핏

섬세하게 표현된 서클링이 눈동자를 더욱 또렷하게 느끼게 해주며, 미세 도트 패턴을 켜켜이 쌓아 부드러운 디자인에 누구나 딱 맞는 사이즈로 부담이 없다. 또렷함과 자연스러움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데일리 컬러인 브라운 등 3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악마원데이 아이듀 미니

내 눈동자에 딱 맞는 그래픽 직경 12.5㎜ 스몰 직경으로 자연스러운 눈빛을 완성할 수 있다. 부드러운 서클링이 눈동자를 감싸 안아 또렷하고 은은한 무드를 더하며,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베이직 컬러로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VOL. 06
난시도 예쁘고, 다양하게
렌즈미 난시 컬러렌즈

LENSME
Beautiful LENS for ME

www.lens-me.com

성수에서 만난 렌즈미, 렌즈가 스타일이 되는 순간



성수동은 브랜드의 현재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트렌드는 이곳에서 실험되고, 소비자는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렌즈미 성수점 팝업은 바로 그 성수 한가운데에서, 콘택트렌즈를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번 팝업은 '렌즈를 체험하는 공간'과 함께 "하나의 씬(Scene)"으로 풀어냈다. 가상피팅존, 포토부스 존, 팝업 체험존, 렌즈미 제품 쇼룸과 프로모션 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은 모든 요소가 렌즈를 설명하기보다, 렌즈를 선택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SEONGSU Pop-up Store

LENSME POP-UP STORE IN SEONGSU

렌즈를 고르는 기준이 달라진 순간



공간 안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지점은 제품 스펙 앞이 아니라, **거울 앞**이었다. "눈에 부담이 없을까?" 보다 "오늘 스타일에 잘 어울릴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렌즈미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오늘 스타일에 잘 어울릴까?"

스타일에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로 제시하다.

자연스러운 컬러, 데일리 룩에 스며드는 디자인, 장시간 착용을 고려한 소재 선택까지. 렌즈는 더 이상 시력교정용 의료 소모품이 아니라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로 제시됐다.

트렌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브랜드



렌즈미 성수 팝업의 인상적인 점은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속도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빠른 유행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 강한 인상보다 오래 편안한 착용감. 이는 안경사에게도 익숙한 가치다.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일수록, 결국 다시 찾는 기준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이기 때문이다.



팝업이 끝난 뒤에도 남는 것

팝업은 일시적이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성수에서 경험한 렌즈미는 '잘 팔리는 브랜드' 를 넘어 지금 **이 시대의 감각을 이해하는 브랜드**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결국, 매장의 상담 테이블 위에서 다시 이어질 것이다. 스타일을 아는 소비자와, 트렌드를 읽는 안경사 사이에서.

서울•부산서 '2026 S/S 신제품 수주회' 성료

안경사들, 구찌 · 발렌티노 등 15개 명품 뉴 컬렉션에 호평… 전자기기 주문 오더에 참석 안경사 '엄지척'



지난 15~1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더 포럼에서 개최된 케어링 아이웨어의 2026 S/S 시즌 신제품 수주회 현장.

케어링 아이웨어의 새해 첫 수주회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더 포럼과 21일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파크 하얏트 부산 등에서 각각 개최돼 많은 안경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수주회는 케어링 아이웨어의 대표 브랜드인 린드버그를 비롯해 마우이 짐, 구찌 등 15개의 명품 브랜드의 2026 S/S 시즌의 다양한 신제품이 선보여 안경사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작년 말부터 케어링 아이웨어가 도입한 종이가 아닌 전자기기를 이용해 오더하는 시스템을 선보여 간편함과 정확도를 더욱 높인 전시회로 호평을 받았다.

케어링 아이웨어의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두 번의 새해 수주회에는 구찌 한국 한정판 컬렉션과 발렌티노의 뉴 컬렉션, 신규 파트너 특전 제공 등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발렌티노는 구찌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손길이 닿은 시리즈로 참석한 안경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의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안경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10-6394-7071



안경존중 KT위즈파크점



안경존중 KT위즈파크점



안경존중 건대점

창업자들 '안경존중'에 쏠림현상… 데이터가 성공 입증

철저한 상권분석으로 이기는 싸움만 제시… 파격적인 상권 보장하는 '건대입구역점' 신규 가맹 제안

㈜안경존중(대표 김광영)이 단순한 가맹점 확장에 그치지 않고, 점주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알짜 상권'만을 엄선해 제안하는 전략이 안경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오픈한 수원의 KT위즈파크점은 안경존중의 세밀한 상권분석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특히 사전분석 결과 유동인구와 구매력을 갖춘 고정 수요층이 탄탄해 초기 안착은 물론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 또한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다.

건대입구역서 3분 거리인 新가맹점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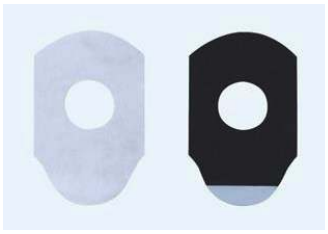
이와 함께 안경존중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의 신규 상권개발을 완료하며 또 한 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안경존중 건대점'의 예정지는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서울 동부권 최대상권 중 하나인 건대상권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안경존중 상권개발팀이 분석한 건대점의 입지 조건은 파격적이다. 165㎡(약 50평) 규모의 중대형 매장임에도 보증금 9천만원, 월세 500만원이란 합리적인 조건을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초기 창업비용의 가장 큰 부담인 권리금이 없는 '무권리' 조건이란 점이 큰 매력이다.

일각에서는 건대 상권을 이미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안경존중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풍부한 유동인구가 보장된 곳에서 차별화된 콘셉트로 승부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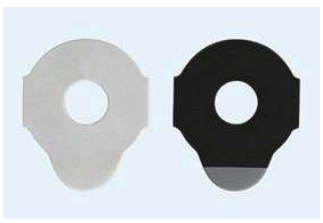
이를 위해 건대점은 국내외 다양한 하우스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콘셉트 매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기존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브랜드 가치와 트렌디한 아이웨어 큐레이션을 통해 구매력 높은 고객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안경존중의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한 가맹점 모집을 뛰어넘어 예비 창업자에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제안하는 상권분석 전문프랜차이즈"라며 "현재 자사는 수원과 건대 이외에도 알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비 창업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의 010-8127-9938



1696M LEAF III

24mm x 18mm



1695M LEAF III

24mm



1693M LEAF III

18mm



(구.3M) 옥습기 블로킹패드 (뽕테이프)
sastisloh DAC
브랜드 명칭만 변경 되어 기존과 같은 품질 제조 된 옥습기 테이프





자석클립형 검사안경 세트 (No.6601)



전용프레임 2EA + 전용 안구링 14조
전용링 사용시 렌즈 2장 옥입가능
탈부착 가능하여 검사용렌즈 옥입하거나
선글라스렌즈 옥입가능

Nado 나도코리아 검색
TALK 나도코리아 카톡상담 nado7942 (나도친구사이)
Tel 053)353-9992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48길 7

FOREIGN NEWS

정리_허정민 기자



미학과 기능 합친 '미가 스튜디오' 신상 런칭

이탈리아의 아이웨어 업체인 MIGA Studio가 최근 대조적인 소재와 형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현대미가 강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미학과 기능의 결합을 위해 기술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이 시리즈는 첨단 티타늄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높은 내구성을 확보했다.

세계 컬러 • 서클렌즈 시장 규모 '쑥쑥'

시장조사기관 MRI, 소비 증가로 2031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해 8조 5천억원 예측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마켓리서치인텔리전스(MRI)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 콘택트렌즈 시장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7.3%씩 성장해 2031년에는 시장 규모가 57억 8천만달러(약 8조 5,18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콘택트렌즈 시장은 눈 화장이나 스타일 연출에 관심이 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눈 색깔을 돋보이게 하거나 메이크업을 보완하며, 일상생활에서 행사 및 패션을 위한 미적 효과를 위해 컬러•서클렌즈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소셜 미디어, 뷰티 인플루언서 및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 증가로 제품 가시성과 소비자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MRI의 관계자는 "2031년까지 뷰티 콘택트렌즈 시장은 혁신과 패션이 어우러져 꾸준히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일회용 렌즈, 자외선 차단 기능, 첨단 색소 기술의 개발은 편의성과 눈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도수 미용렌즈



와 지역별 색상 선호도 등 맞춤형 옵션은 소비자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 렌즈카트, AI 시력검사 시스템 도입

안경사 부족한 500여 가맹점에 설치… 대다수 고객 '만족' 답변

인도의 대형 안경업체인 LensKart가 안경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원격 시력검사 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안경사 부족을 겪고 있는 렌즈카트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전국의 500여 가맹점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원격 시력검사 시스템을 도입, 이를 경험한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한다'고 평가하며 인력난 문제를 해소한 것.

회사의 운영 담당자는 "'렌즈카트 솔루션'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한 후 고객의 평균 대기시간이 19.5분에서 15.8분으로 단축돼 고객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며 "렌즈카트 솔루션을 설치한 이후 930만건의 시력검사를 실시해 전년대비 약 47% 증가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금 현재는 신규 매장이나 환자수가 적은 매장은 처음부터 원격검사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추세로, 향후 렌즈카트 솔루션은 우리 가맹점의 기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NO!

눈 건강과 수면에 부정 영향… 불면증 63%↑, 수면 시간 평균 24분↓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눈 건강과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신의학 저널인 「프론티어스」에 발표된 4만 5천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에 스크린 사용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불면증 위험이 63% 증가하고, 수면 시간이 평균 24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 벨레어에 위치한 벨레어패밀리 아이케어의 아메나 M.카즈미 박사는 "밝은 화면, 특히 청색광은 각성을 조절하는 뇌 영역을 자극해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돼 잠들기 어려워져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더욱이 휴대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리 초점을 요구하기에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장시간 근거리를 쳐다보면 안구건조 또는 작열감, 시야 흐림, 두통, 눈의 피로, 초점 장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안과학회(AAO)의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밤에 사용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실명할 위험도 있다"며 "따라서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미국안과학회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청색광이 비치는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OOK | 손재환 원장의 전문가로 거듭나는 실전 가이드 '안경사의 기술'③



용모 및 복장

용모 및 복장의 기준

용모와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배려이며, 나아가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안보건을 책임지는 안경사로서 전문가적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보면 안경사는 전문직인데 자유 복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매장의 특성상 자유롭고 캐주얼하게 입고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매장은 복장이 너무 일반 상품 판매사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흔하다. 일반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의 복장과 백화점의 전문매장에서 근무하는 복장과는 차이가 있다. 직접 한번 체크해 보라. 분명히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안경사의 복장은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복장을 원한다. 그래서 안경원에서 근무할 때 본인의 복장은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 스타일 옷을 입고 일을 하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통일되게 복장을 권장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칫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고객들에게 이 안경원에 오면 뭔가 전문가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신뢰가 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고객들이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안경원의 느낌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므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 있다면



사진은 손재환 원장이 운영하는 아이데코 의왕점 상담실 모습

무조건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을 마주하는 직업이므로 복장은 청결하고 깔끔하게 입어야 한다. 편하다고 같은 옷을 일주일 또는 어떤 직원은 한 달 동안 입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상대를 평가할 때 외모로도 평가하지만, 마찬가지로 복장으로도 평가하는 편이다. 안경사는 장사꾼이 아니고 전문가다. 전문가는 전문가다운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안경원 직원들에게 그 자부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위해 받은 월급의 5~10%를 나의 외모와 외관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한 1년에 2회 정도 옷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의 시력을 관리하고 눈을 담당하는 준의료인이자 전문가다. 절대 잊지 말자.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눈을 관리하는 전문가이다. 전문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생각과 습관이 필요하다.

〈계속〉

韓 걸그룹, 日 콘택트렌즈 시장 달구다

르세라핌 김채원 내세운 '레비아' 신상 콘택트렌즈 출시부터 판매 향상

일본의 콘택트렌즈 브랜드 ReVIA가 런칭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채원을 새로운 브랜드 뮤즈로 선정한 후 지난 14일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일본 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르세라핌의 멤버를 내세운 레비아의 이번 제품은 출시 시작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투명감과 다채로움이 담긴 4가지의 새로운 컬러로 구성된 이번 신상은 섬세하고 인상적인 눈동자를 연출하는 레비아만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신제품 레비아 원데이 컬러 1상자(10p)의 가격은 23,432엔(약 22만원)으로 레비아의 브랜드 직영숍과 일본의 대형 할인점인 돈키호테에서 판매 중이다.

인도 제약사, 가려운 눈 치료액 출시

FDA 승인 후 미국서 안과용 '제네릭' 출시… 꽃가루 부작용 완화

인도 뉴델리에 본사가 있는 Dr Reddy's Laboratories가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가려운 눈을 치료하는 안과용 용액 제네릭을 일반의약품으로 미국에서 출시했다. 닥터 레디스 래버러토리스의 올로파타딘 염산염 안과용 용액인 USP 0.7%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점안액으로 꽃가루, 돼지풀, 동물의 털, 비듬 등으로 가려운 눈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치료제다.



닥터 레디스 래버러토리스의 북미 제네릭 사업부의 밀란 칼라 와디아 CEO는 "자사는 이번 출시로 기존의 안과용 일반의약품 포트폴리오에 올로파타딘 염산염 안과용 용액 USP 0.2% 및 0.1% 제품이 추가되었다"며 "우리 고유 브랜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일반의약품으로 출시하는 것은 자사의 뛰어난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뒤 공개된 기술과 원료를 바탕으로 만든 오리지널과 성분 및 효능이 동등한 의약품을 말한다.

탑콘 헬스케어, 레모니헬스와 MOU

원격진료 관리 회사와 가정 내 통합 의료 생태계 구축 위해 업무협약

디지털 헬스케어 및 안과 데이터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Topcon Healthcare가 지난 14일 원격 진료관리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안과질환 모니터링 기업인 RemoniHealth와 상업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병원 내 영상진단, AI 기반 분석, 가정 내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관리를 통합하는 원활한 통합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레모니헬스의 기능을 탑콘 헬스케어의 클라우드 기반 연결형 의료 플랫폼인 'Harmony'에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레모니헬스의 CEO인 촌츠 이안출레프 박사는 "우리의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과 탑콘 헬스케어의 연결형 의료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만성 안질환 치료를 현대화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탑콘 헬스케어의 알리 타프레시 CEO는 "원격의료가 만성 질환 관리에 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환자들은 진료실을 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레모니헬스의 역량은 가정으로 의료 서비스를 확장하고, 치료의 조기 결정과 더 나은 결과를 가능케 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안과 의료전략'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질환 발병률 높이는 심혈관 질환

美 UCLA병원, 심혈관 질환자의 녹내장 발병률 일반인보다 2.3배 높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 낮은 사람에 비해 녹내장 발병률이 두 배나 높고, 황반변성 발병률은 여섯 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UCLA병원의 안과 연구진 8명이 지난 12일 「안과학저널」에 발표한 연구는 개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 지수가 흔한 안과질환의 발병 가능성과의 관련성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40세에서 79세 사이의 성인 35,909명의 전자 의료기록을 분석,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흡연 여부 및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각 개인에 대한 통합 코호트 방정식(PCE) 심혈관 질환 위험 점수를 계산했다. 또 참가자들의 위험도에 따라 낮음부터 높음까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몇 년간 누가 안과질환을 앓게 됐는지를 추적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노인성 황반변성 발병률 6.2배 ▶당뇨병성 망막증 발병률 5.9배 ▶고혈압성 망막증 발병률 4.5배 ▶망막정맥폐쇄 발병률 3.4배 ▶녹내장 발병률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CLA 헬스의 안과 전문의이자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앤 L.콜먼 박사는 "우리는 매년 수백만 건의 병원 방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산출되는 PCE의 간단한 점수를 통해 심각한 안과질환 발병 여부를 예측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놀라운 '그린란드 상어'의 시력

美 캘리포니아대 연구팀, 그린란드 상어의 시력 유지 DNA 메커니즘 발견

북대서양 심해에 살고 있는 최장수 척추동물인 그린란드 상어가 시각 보존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와 스위스 바젤대 합동연구팀이 지난 7일 물리학, 의학, 생물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을 다루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0년 이상된 개체도 발견된 그린란드 상어가 수 세기 동안 시력을 유지하는 DNA 메커니즘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그린란드 상어의 망막 내의 막대세포가 온전하고 강력하게 발현되는 반면, 원추세포는 가성화됐거나 더 이상 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그린란드 상어가 극도로 긴 수명임에도 망막의 완전성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 안과의 도로트 스코브론스카 크라브치크 박사는 "우리는 그동안 그린란드 상어가 극도로 긴 수명과 가혹한 환경 조건, 그리고 만연한 각막 기생충 감염으로 평생 시력이 손상됐거나 퇴화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반대로서 그린란드 상어의 시각 체계는 온전했고 어두운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연구결과가 노화로 인한 시력손실을 예방하고, 황반변성이나 녹내장과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능 앞선 '보청기 달린 안경' 인기

에실로룩소티카, '뉘앙스 오디오 글라스' 성능 공개… 잡음비 향상

EssilorLuxottica가 지난 16일 호주와 캐나다에서 진행된 두 건의 임상연구를 통해 경도에서 중등도의 난청을 가진 성인을 위한 스마트글라스형 개방형 보청기 '뉘앙스 오디오 글라스'의 성능을 평가한 새로운 결과를 공개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국립음향연구소(NAL)와 캐나다 웨스턴대학교에서 진행된 두 건의 연구는 종합적으로 뉘앙스 오디오 글라스의 통제된 실험실 성능과 실제 청취 경험이 모두 평가됐다. NAL의 연구에선 ▶신호 대 잡음비(SNR)가 3.48db 향상되고 ▶참가자 70%가 사용 3시간 만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고했고 ▶참가자들의 의사소통 목표는 84%에서 95%까지 높아졌다. 또한 웨스턴대에서 진행된 연구는 일상적인 청취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된 소음 조건에서 뉘앙스 오디오 글라스가 사용됐다. 그 결과 까다로운 음향 환경에서도 음성 이해도가 최대 2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실로룩소티카의 뉘앙스 오디오 부문의 책임자인 타미 하렐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통제된 환경에서 측정 가능한 음향 개선에서 실제 소통 환경의 이점까지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었다"며 "두 연구 모두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용자들은 실제 시끄러운 대화 환경에서도 뉘앙스 오디오 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콘, 스타 서지컬 인수 무산

주주 투표서 16억달러 인수액 부결로 계약 해지… 스타는 제3자 모색

세계적인 안과 의료기기 제조기업 Alcon이 지난 6일 STAAR Surgical과의 합병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6일 오전에 실시된 스타 서지컬의 주주 투표에서 알콘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약 16억달러(약 2조 3,608억원) 규모의 합병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스타는 알콘의 이 같은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의 주주 투표 최종 확정 결과는 6일 오후 늦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됐으며, 양측 모두 해지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콘의 데이비드 J.엔디콧 CEO는 "우리는 이번 합병 시도의 과정 전반에 걸쳐 가격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견해를 유지했다"며 "알콘의 굴절교정 전략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란 뜻을 밝혔다.

News



엔믹스 해원의 애착템은 '쏘럭스'

패션 아이웨어 쏘럭스가 걸그룹 엔믹스의 리드보컬 해원 씨가 애용하는 안경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해원 씨는 각종 방송활동과 SNS 등에 라운드스퀘어의 림이 돋보이는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는데, 해당 안경은 쏘럭스의 리나 컬렉션이다. 총 3가지 컬러로 구성된 리나는 아세테이트 특유의 선명한 색감이 돋보이는 아이웨어다.

문의 02)2039-2665

쿠퍼비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

성평등가족부,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와 일·생활 균형 지원 높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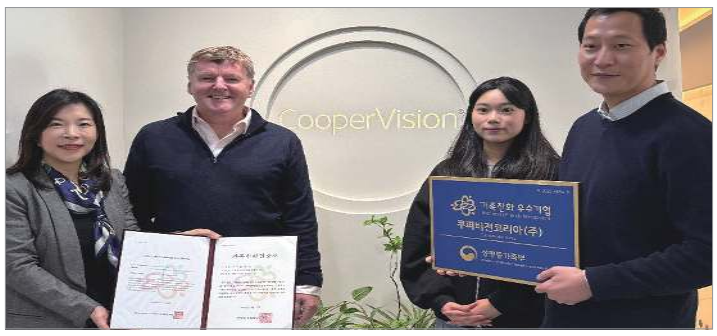
쿠퍼비전코리아㈜(대표 롭 웹)가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로부터 '2025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 회사는 인증 취득을 기념하며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 현판 제막식을 갖고, 가족친화 경영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그동안 쿠퍼비전코리아는 '직원의 웰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연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 ▶패밀리데이 운영 ▶임직원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등 포용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회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가족친화 경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구성원이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롭 웹 대표는 "가족친화인증은 우리 회사가 꾸준히 추진해 온 직원과 가족의 웰빙·성장을 위한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가족친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육아지원 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직원 복지 수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문의 1688-5401



노안의 골치덩이 1위는 '작은 글자'

에실로, 소비자 100명 조사서 밝혀… 첨단 '바리락스 피지오익스텐시' 제안

㈜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가 최근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시력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40세 이상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체감하는 노안 증상은 ▶스마트폰·인쇄물의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음(33%) ▶눈의 잦은 피로감(24%) ▶원거리와 근거리 전환 시 초점이 느려짐(19%) 등이 꼽혔다. 또한 노안 증상을 경험한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불편함을 참고 지낸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무려 41%에 달해 여전히 노안 관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안을 손쉽게 관리하는 누진렌즈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자연스럽게 변화해 먼 거리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솔류션이다. 특히 에실로코리아에서 지난 12월에 출시한 차세대 누진 '바리락스 피지오익스텐시'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착용자의 동공 변화를 예측을 렌즈 설계에 반영해 다양한 거리에서도 선명함을 선사하는 차세대 누진렌즈다.

문의 02)6350-1050

최고의 근시관리?… 렌즈 선택이 중요

자이스, 어린이 근시관리 위한 '365 안심 올케어' 프로그램 운영

칼자이스비전코리아㈜가 성장기 어린이의 근시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자이스 올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이스 올케어 프로그램은 성장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어린이의 시력과 렌즈의 사용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통합 근시관리 서비스로, 렌즈를 착용한 이후에도 시력 변화를 꾸준히 점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근시관리 렌즈 '마이오케어'와 '마이오케어에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렌즈 구매 후 12개월간 ▶시력(도수) 변화 ▶렌즈 파손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365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렌즈 구매 후 12개월 내에 시력 변화나 렌즈 파손이 발생하면 1회에 한해 동일 사양의 새 렌즈로 교체·지원한다. 회사의 관계자는 "성장기 어린이는 활동량과 학습 시간이 늘어나기에 좋은 렌즈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근시 관리가 끝나지 않는다"며 "최적의 시력 관리는 시력 변화와 예기치 못한 파손, 검진을 놓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이스 올케어 프로그램은 렌즈 구매 후에도 이어지는 '케어의 완성'을 목표로 하며, 어린이의 시력 변화와 일상 속 돌발 상황까지 모두 아우르는 근시 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문의 02)3140-2616

렌즈 가공기 'HPE-990' 관심 집중

휴비츠, 고난도 선글라스·특수 프레임 완벽 가공… 프리미엄 가공기로 주목

㈜휴비츠(대표 김현수)의 프리미엄 렌즈 가공기 HPE-990이 고급 선글라스와 특수 프레임 가공 수요가 높은 안경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 장비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고난도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는 물론 글로벌 프리미엄 안경원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HPE-990의 최대 강점은 휴비츠만의 독자적인 '딥 스텝 베벨'기술로 최대 20mm 깊이까지 안정적인 가공이 가능해 프레임 외부로 렌즈가 덮이는 구조의 렌즈 오버 프레임 선글라스를 세계 최초로



가공할 수 있다. 휴비츠는 국내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급 선글라스와 특수 가공 수요가 높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술 교육과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휴비츠의 인지도를 '프리미엄 가공기'로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문의 031)428-9100

안보현의 멋진 컬렉션은 '까르뱅'

투페이스, 아세테이트 소재로 견고성 자랑… 남성미+안정감 우수

투페이스옵티칼(대표 고대우)의 대표 브랜드 CARVEN이 배우 안보현 씨에게 협찬돼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선택한 컬렉션은 까르뱅 Giselle col.1으로 이 컬렉션의 윗부분은 플랫하고, 아랫부분은 둥근 사각의 형태로 설계돼 남성적인 안정감과 부드러운 인상을 동시에 방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까르뱅의 관계자는 "아세테이트 소재의 프레임을 사용해 견고하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젤 컬렉션은 메탈과 아세테이트를 조합한 믹스&매치 콘셉트의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전했다.

문의 053)353-7851



룩옵틱스, 2026 S/S 시즌 신상 대방출

페라가모·DUNN 신제품 눈길… 세련된 애티튜드로 소비자들 호평

㈜룩옵티스(회장 허명효)에서 2026년 S/S 시즌의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얼굴형에 맞춰 디자인된 페라가모 SF2098SLBK 컬렉션은 동양인의 두상을 연구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한 착용감을 실현했다. 세련된 애티튜드로 데일리 아이웨어로써 출시 초반부터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것. 또한 지난해 출시되어 품절 대란을 일으킨 룩옵티컬의 베스



룩옵티컬 DUNN(상단)과 페라가모 SF2098SLBK

트 모델인 'DUNN'이 신년을 맞아 사이즈를 추가한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됐다. 둥근 타원형의 오벌 쉐입이 근래 아이웨어 트렌드인 긱시크 스타일에 제격으로,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을 보장하고 있다.

문의 1599-3016

Neon
눈이 자유로운 세상

눈(眼)이 너무 좋아하는 '네온 RGP렌즈'
안경사 전문가다움은 네온RGP 처방입니다.



네온 RGP 렌즈 정기교육

내용 : RGP렌즈 초급자 교육
일정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시간 :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5층 1524호(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교육 문의 및 신청 1644-2806

업계 유일하게 자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네온TEC.
저희 네온TEC는 첨단 RGP렌즈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자동 처방 프로그램 이용방법

네온렌즈 검색 → 어플 설치 → 자동처방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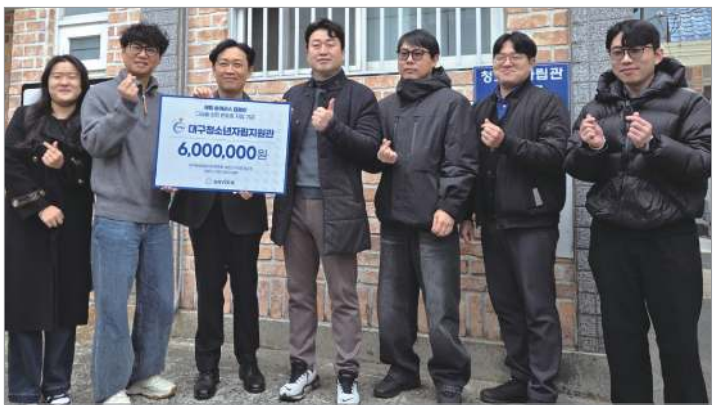
주문전화 | 1644-2806

다비치의 해피 바이러스 캠페인 '훈훈'

친절 안경사 20명이 보육시설에 2천만원 기금 전달… 청소년들 자립 지원

㈜다비치안경이 '해피 바이러스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봉사·배려·미래의 의미를 담은 안경테 브랜드 '비비엠'의 '구매가 곧 나눔'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기획됐다. 고객의 칭찬을 계기로 현장에서 실천된 친절과 배려가 다시 사회로 이어지는 구조가 캠페인의 핵심으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긍정적인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확장되는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다. 다비치는 2025년 하반기 고객 칭찬을 바탕으로 총 20명의 친절 안경사가 선정됐고, 이들 안경사들은 기부 실행에 직접 참여해 지역별 보육시설을 선정해 자립기금을 지원했다. 회사의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의 총 규모는 2,000만원으로 자사는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기금은 '디딤돌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월세 및 생활비 지원에 활용되며, 안경사 진로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디딤돌 성장 멘토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752-6177

으뜸50안경 '일산역점 • 신내점' 개원

연초부터 높은 가맹률 속 릴레이 개원… 많은 유동인구로 성공 예약

㈜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이 연초부터 높은 가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일산역점과 16일 신내점이 각각 화려한 오픈 이벤트와 함께 개원한 것.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고양대로에 위치한 일산역점은 상가 2층의 60㎡(약 18평) 규모의 안경원으로 경의중앙선 일산역 2번출구에서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고객들의 무료주차도 가능한 가맹점이다. 또한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의 신내점은 83㎡(약 25평)의 중형급 안경원으로 1시간 30분의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으뜸50안경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안경사분들의 높으신 관심과 성원으로 현재의 으뜸50이 있다"며 "올해에도 우리 본사는 가맹점 친화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1522-1584



으뜸50안경 일산역점(사진 좌측)과 신내점

디자인이 다르다… '올소 느르딕' 출시

시력보정+패션 아이템 역할 '톡톡'… 원색 프레임에 젊은층 환호

㈜아이토픽광학(대표 이병창)의 대표 브랜드 OLSO Nordic이 신년을 맞아 2026년 S/S 시즌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일상의 착용을 고려한 실용적인 안경테로 설계되는 올소 노르딕의 이번 신상 시리즈는 가볍고 안정적인 착용감, 균형 잡힌 구조를 완성해 시력보정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디자인적 완성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올소 노르딕의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의 안경은 기능에 머물지 않고, 클린한 프레임 위에 더해진 원색을 통해 시선을 과시하기보다 스타일을 완성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웨어가 시력보정용 제품을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53)551-8034

누진 같은 이중초점 근용안경 개발

이롬, 국내 최초로 근용안경 개선한 '블렌디드 이중초점 돋보기' 출시

㈜이롬파트너스에서 기존의 근용안경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기능성 안경을 선보였다. 그동안 외관상의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이 외면해 왔던 이중초점 안경을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 '블렌디드 이중초점 기성 돋보기안경'으로 출시한 것.

사실 기존의 이중초점 안경은 렌즈 하단에 뚜렷한 경계선으로 소위 '할아버지 안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선보인 '헨리 로렌 이중초점 돋보기 안경'은 근용 도수 부분의 경계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개발해 스타일을 중시하는 중장년층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이롬파트너스의 관계자는 "이중초점 안경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실용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그동안 눈에 드러나는 근용부 경계선 때문에 사용을 꺼렸던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번 블렌디드는 가격과 성능, 미관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245-6867

카린, 성수 플래그십서 전시회

제왕나비의 여정 담아 '단단한 자기 확신' 메시지 전달… 2월까지 개최

모던 컨템포러리 아이웨어 카린이 지난 22일 카린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문을 연 'Butterfly's Journey' 전시에 수많은 인플루언서와 방문객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오프닝을 마쳤다. 이번 전시는 뉴욕의 저명한 그래픽 노블리스트 피터 쿠퍼 작가의 대표작을 기반으로, 카린의 시즌 모티브인 '나비'를 전시 콘텐츠로 확장해 브랜드가 지향하는 '단단한 자기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시 시작부터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방문객들은 제왕나비의 장대한 이동 경로를 감각적으로 구현한 전시 공간에서 쿠퍼 작가의 원작 세계를 경험하면서 카린의 아이웨어를 직접 착용하며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한편 제왕나비의 여정을 담은 '버터플라이즈 저니' 전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카린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계속된다.

문의 02)6285-5280

마우이 짐, F1 레이싱팀과 협력 강화

'레이싱 캡슐'의 2종 모델 런칭… '블루 하와이' 미러렌즈 독특



프리미엄 편광 선글라스 마우이 짐이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했다. 마우이 짐이 제8회 월드챔피언 팀의 공식 아이웨어 파트너로서 전 세계 레이스 기간에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소속 드라이버를 비롯한 피트 크루와 운영 스태프에게 자사의 아이웨어를 제공하는 것. 특히 마우이 짐은 레드불 레이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엘리마' 컬렉션 일부를 '레이싱 캡슐'로 새롭게 구성해 선보이는 정성을 보였다. 이번 캡슐 컬렉션의 핵심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모델을 현대적이고 스포티하게 재해석한 '호오키파 울트라'의 두 가지 신규 컬러웨이로 두 모델은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의 시그니처 컬러 팔레트에서 영감받아 오렌지 템플 팁과 조화를 이루는 '하와이 라바' 레드 미러 렌즈와 옐로 템플 팁이 포인트가 되는 '블루 하와이' 블루 미러렌즈로 구성됐다.

문의 010-6394-7071

린드버그, '붉은 말'을 기념하다!

등자서 영감받은 스페셜 에디션 전 세계에 90장 한정 유통

덴마크의 프리미엄 아이웨어 브랜드 린드버그가 말의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수십 년간 린드버그는 미니멀한 덴마크 디자인과 파인 주얼리 장인정신을 결합해 럭셔리한 기준을 새롭게 정의, 아이웨어를 단순한 기능에서 뛰어넘어 착용이 가능한 예술품으로 승화시켜 왔다. 린드버그는 이번 말의 해를 맞아 등자(stirrup)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을 정교하게 담아낸 한정판 프레셔스 컬렉션을 공개했는데, 등자의 형태를 간결한 기하학적 라인으로 재해석하고 템플 위에 우아하게 배치해 지혜와 용기를 상징하는 타임리스한 모티브로 완성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린드버그의 상징적인 스피릿 티타늄 컬렉션에 기반해 각 프레임은 18K 골드 소재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완성하고, 고급스러운 마감과 가벼운 착용감, 그리고 견고한 내구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10-6394-7071


BLACK BARON

진흥원, 우수 안경기업에 표창장 수여

브랜드 가치와 기술 • 디자인 역량 종합 평가… 팬텀옵티칼 등 5개사 선정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종한)이 지난 5일 시무식을 갖고 2025년 한 해 동안 높은 성과를 창출해 한국 안경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안경기업 5곳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디자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안경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됐으며, 특히 평균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글로벌안경브랜드육성 3개사 ▶디자인역량강화 1개사 ▶첨단산업융복합지원 1개사 등으로 평가해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빅스타아이엔지(대표 김대용)•㈜옵티션찰리피플(대표 한성봉)•㈜두눈(대표 박종성)•㈜어반아이웨어(대표 이희준)에 대해 표창했다.

진흥원의 관계자는 "우리 원은 앞으로도 우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며 K-아이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우수 안경기업으로 평가는 2025년 한국안경산업 고도화육성사업의 결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문의 053)350-7800

교수협의회, 연수회 및 정총 개최

'스마트 안경의 미래' 주제 특강… 신임 회장에 을지대 임현성 교수 선출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의 2025 동계연수회 및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대구보건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안경광학 교육 발전과 현안 논의의 장이 되었다. 연수회 첫날 오후에는 '스마트 안경의 미래'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으로 미래 기술 동향을 공유했으며, 대한안경사협회의 정책 설명과 안광과 현안 논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당면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을지대 임현성 교수를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후 올해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전국 안광과 교수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국내 안경광학 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의 010-7761-9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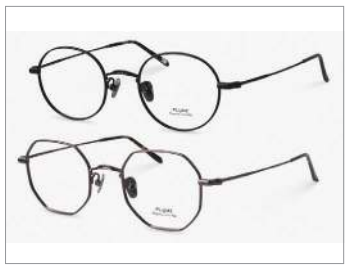
각종 매체에 보도된 안경 종합뉴스



▶메타, 스마트안경 생산 2배로 확대 추진(동아일보/ 1월 15일)
▶영동군, 백내장 • 무릎관절 수술 지원 성과… 1천 122명 혜택(연합뉴스/ 1월 15일)
▶XR 새 격전지로 떠오른 AI 안경, 게임체인저 될 수 있을까(한경비즈니스/ 1월 17일)
▶오픈AI "연말 하드웨어 공개"… 안경 • 이어폰 타입 유력(뉴스토마토/ 1월 20일)
▶'안경도 한류 바람'… 대구보건대학, 인니서 'K-아이웨어' 희망 쏘다(세계일보/ 1월 21일)

한겨울 훈풍… 신상 '플럼' 인기 강세

팬텀옵티칼, P-10008 • P-10009 런칭… 세련미와 내구성 환상 조화



플럼 P-10008(상단)과 P-10009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에서 대표 브랜드 플럼의 신제품 두 종류를 선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출시된 플럼의 신상 P-10008과 P-10009는 옥타곤 쉐입의 심플하면서도 미니멀리즘의 얇은 메탈에서 세련미가 돋보이는 컬렉션이다.

플럼의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전면부와 템플을 잇는 경첩은 정교하고 단단하게 연결돼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며 "원통형 쉐입의 템플은 두께감의 변화를 주는 디테일로, 안정된 밸런스를 갖고 있고 템플의 피팅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무게 밸런스에 최적화된 슬림한 디자인 아세테이트 팁이 적용돼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메탈 소재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알레르기를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70-4257-6102

시기능교육전문가 검정시험 전원합격

1급 12명, 2급 19명 등 국제 수준의 시기능훈련 전문가 31명 탄생

OVDRA Korea 국제지부(한국시기능훈련교육협회, 이사장 신효순)에서 주관하는 시기능교육전문가 검정시험이 지난 8일 서울교육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제6회 시기능교육전문가 검정시험에는 총 31명(1급 12명, 2급 19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검정시험에서 1급에 합격한 최수정 회원은 "작년 2급 시험에 이어 올해 1급 시기능교육전문가 검정시험에서 수석 합격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안경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안경사들께서 시기능전문가에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2급에 도전해 합격한 조세형 회원은 "시기능전문가 검정시험에서 수석의 영예를 안아 감사함이 앞선다"며 "스마트 기기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번 자격 취득은 단순한 스펙이 아닌 고객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의 070-8274-3280



최적의 시각적 안정감… 차세대 비구면 토카이 'HR-W'



토카이렌즈의 차세대 비구면렌즈 'HR-W'는 시야에 더욱 높은 선명도를 제공하면서 양면비구면 설계를 통해 주변부 울렁임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최적의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차세대 고기능 렌즈다. 토카이 'HR-W'는 선명도, 왜곡, 양안수차 등에서 기존 렌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능으로 출시 이후 안경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토카이렌즈‖ 문의 02)337-8666**

Entertain-ment



안경 하나로 세련미 '뿜뿜'

가수 겸 배우 엄정화가 초근접 셀피 한 장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엄정화는 자신의 SNS 계정에 'days…'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가장 돋보이는 포인트는 단연 안경으로, 날렵한 턱선과 조화를 이룬 검은색 안경은 그녀 특유의 도시적이고 지적인 분위기를 배가시켰다.

안경으로 완성한 긱시크 화보 분위기 물씬 임수향



배우 임수향이 안경 하나로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선보였다. 지난 23일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 괜찮냐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말없이 잘자요 아가씨 영상을 보내줬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임수향은 블랙 컬러의 트위드 재킷에 심플한 이너를 매치해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데일리룩을 선보였다.

또렷한 인상 보인 '도겸' 오버사이즈 까르뱅 착용



그룹 세븐틴의 멤버인 도겸이 근래 방송에서 착용하고 있는 안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겸은 검은색 오버사이즈 림의 도수테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까르뱅의 최신 컬렉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테이트 소재의 전면부와 메탈로 제작된 템플의 믹스&매치 스타일의 해당 안경은 큰 림 사이즈로 시야각에 부담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디자인이다.

그가 사랑하는 매력템은 '플럼에디터'

워나원 • 핫샷의 하성운, 도수테 패션 화제… 플럼에디터의 요크 컬렉션에 급관심

인기그룹 워나원과 핫샷의 메인보컬인 하성운이 최근 방송활동 등에서 자주 선보이는 멋진 도수테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선택한 안경은 플럼에디터의 요크 컬렉션으로 이는 넉넉한 사이즈의 보스턴 쉐입의 림 형태와 키홀 브리지가 클래식함을 강조하고 있다. 플럼에디터 고유의 리벳 디자인과 템플 팁부분에 라이닝 디테일의 메탈링이 특징으로 프레임과 템플은 고급 아세테이트 시트를 사용했고, 티타늄 소재의 조정이 가능한 코받침이 부착돼 최상의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한편 플럼에디터의 해당 컬렉션이 그의 안경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 온라인의 팬덤 등에선 '하성운 안경'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훈남 비주얼 공개한 '임영웅' 안경으로 블랙&화이트 연출

가창력만큼 독보적인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가수 임영웅이 안경을 착용한 셀피를 공개했다. 임영웅은 지난 22일 별다른 멘트 없이 자신의 SNS에 일상의 여유를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서 검정 뿔테를 착용한 임영웅은 패션의 기본으로 불리는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을 선택, 탄탄한 피지컬을 돋보이게 하는 오버핏 블랙 셔츠를 화이트 팬츠 안에 넣어 연출해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고프코어 커플룩으로 안구 정화

생일 축하메시지 보낸 타잔… 매력적인 선글라스로 시선 '훅'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 타잔이 동료 애니를 향한 특별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두 사람의 독보적인 비주얼 케미를 뽐냈다. 타잔은 지난 23일 개인 인스타그램과 팬 소통 플랫폼 '데이 오프'를 통해 애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타잔은 실버 프레임의 고글 선글라스와 뒤로 눌러쓴 캡 모자로 남성미 넘치는 스트릿 감성을 연출했으며, 애니는 볼드한 블랙 프레임 선글라스로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완성했다.



서른 번째 생일 맞은 제니 7개 국어로 축하 답지 댓글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서른 번째 생일을 맞아 감각이 돋보이는 생일 파티 현장을 공개했다. 제니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thirtyyyyyy'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화려한 머리띠와 선글라스를 매치한 제니는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인 '시나모롤' 모양의 케이크를 들고 생일초를 불려고 하는 모습이다. 영상을 접한 글로벌 팬들은 7개 국어 이상의 언어로 축하 댓글을 남기며 뜨겁게 호응했다.

Quiz

SUDOKU 기초 공략

			4		9		7	8
		2			1			
5	4				6			
7	5				8		1	
				1	2			5
2		1	5	4		3	8	
	3	4		9		8		
9	2		7	6	4			1
	7			8		9		6

▶ 스도쿠 게임 규칙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3. 가로 세로 3×3칸의 모든 블록에도 1~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SUDOKU 정답 〈지난호〉

5	6	7	2	1	3	8	9	4
4	9	3	8	7	5	2	1	6
8	2	1	4	6	9	5	7	3
9	7	8	5	2	6	3	4	1
1	4	6	3	8	7	9	5	2
3	5	2	9	4	1	7	6	8
2	8	9	1	5	4	6	3	7
7	3	4	6	9	2	1	8	5
6	1	5	7	3	8	4	2	9

DOING MEDIA (두잉미디어) Optic Weekly
우(04501)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85, 101동 1106호 (만리동2가, KCC파크타운)
대표전화 : (02)-313-5585 FAX : (02)-363-0345
이메일 : opticweekly@naver.com 홈페이지 : www.opticweekly.com
취재국 / 영업국 / 광고신청 / 구독신청 : (02)-363-3885
등록일 : 2010년 1월 6일 등록번호 : 서울 다09905(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신청 : 우리은행(1005-004-387851) 예금주 : 두잉미디어
발행 : 두잉미디어 옵틱위클리 발행인 : 김태용 간별 : 격주간 구독료 : 년24,000원 1부 : 1,000원



국내 최대 안경체인
다비치안경과 함께 하세요!

DAVICH

1 **가맹점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최대 3억 창업 대출 프로그램, 업계 최초 법률 상담 지원

2 **안경사 전문 교육**에 앞장 섭니다.
사관·공채를 통한 전문 인재 보급,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3 **지역핵심 상권**을 찾아 드립니다.
전문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 오픈

4 **가맹점의 매출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전략적 마케팅 활동과 맞춤 컨설팅 시스템 제공







다비치안경은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DAVICH 릴레이 오픈중

2026
- 2월 신제주연북로점
- 3월 인천불로점
- 포항월동점

[오픈예정지역]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 상일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까치산역 / 화곡역 / 신방화사거리 관악구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역 구로구 :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 구로구청사거리 / 개봉역 / 대림역 금천구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원구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상도역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역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사거리 /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모래내시장 서초구 : 반포동 고속터미널 / 교대역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동구 : 행당동 무학여고사거리 / 성수동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역 / 한성대입구 송파구 : 문정동 법조타운(가든파이브)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은평구 : 은평뉴타운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대학로 / 경복궁역 중구 : 을지로4가역 / 신당역 / 약수역 사거리 중랑구 : 신내동 / 동부시장 영남 부산 : 센텀시티역 벡스코 / 부산시청앞 / 연산동 / 명지국제신도시 / 기장정관 울산 : 화봉동 대구 : 지산동(지산역 사거리) / 침산동 / 화원삼거리 경북 : 구미 옥계동 / 문경 경남 : 진주 평거동 경기 광명 : 광명KTX역 / 철산역 / 소하동 부천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역 / 정자역 / 오리역 시흥 : 장현지구 / 목감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안양 : 범계역 / 인덕원 용인 : 성복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 기흥구청 / 역북지구 의정부 : 회룡 인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 소래포구역 /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파주 : 금촌동 / 금룡역 / 운정지구 / 문산읍 고양 : 탄현역(중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걸포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오전동(의왕 이마트 앞) 화성 : 화성시청신도시 안성 : 공도 강원 홍천 대전 관평동 / 도마동 / 월평동 충남 배방읍 아산역 / 천안행정타운 광주 금호지구 / 일곡지구 / 봉선동 / 운암동 전남 여수 웅천동

[브랜드 대상 내역]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다비치안경!

가맹상담문의 **010-4087-0250**
- 이메일 문의 가능합니다 -
jewdas305@davich.com

다비치 안경 **다비치** 보청기 **다비치** 홀딩스 KVISION

Optic Weekly

Since 1993

www.opticweekly.com

안경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 주간 옵틱위클리 2026년 1월 31일 발행 (385호)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JIN OPTICAL 국내 최저가 공급 www.opticalmarker.com

도수렌즈 완제품 국내 최다보유 ● CR 평면, 밀러렌즈, 각종 평면렌즈, 다량 보유

취급 품목 CR39, 중굴절, 고굴절, 중누진 변색렌즈, 고굴절 청광 차단렌즈
중·고굴절 컬러 초발수 렌즈 등 각종 Rx렌즈 취급

진광학 |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선입금 • 현금 판매만 가능,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TEL. 02-773-1001, 752-2810 • FAX. 02-757-8173, 775-1002

